

현대의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착취와 억압에 반대하고 자신의 몫과 동등한 지위를 요구하는 의제와 운동은 언제나 국제주의를 머리와 가슴에 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가장 뚜렷한 예가 범 아프리카주의 같은 디아스포라의 운동이긴 하지만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자 사회운동으로 여겨지는 노동자 운동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착취와 억압이 (국제 노동 분업에 따른) 지역적 차이 그리고 각국의 정치적, 문화적 양상에 따른 고유한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추동력과 메커니즘 자체가 세계적이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 체제가 국가 간 체제(inter-state system)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제주의가 취할 수 있는 제도의 한 가지 형태가 대회(congress)였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열리는 대회는 우선 구체적 정세 속에서 해당 운동의 공통 과제를 도출하고 선언하는 자리이다. 하지만 대회를 여는 일 자체가 또한 하나의 운동일 수밖에 없다. 대회 자체가 국제주의 운동의 제도 형태라 한다면, 이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다시 흩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운동의 결절점을 형성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결절점의 색깔을 규정하는 주요한 힘 가운데 하나가 개최지(호스트) 운동의 지향과 역량이다. 개최지의 운동이 해당 운동 내에서 가지고 있는 지향, 즉 좀 더 급진적이거나 아니면 개혁적이거나,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운동의 대의를 구성하는가, 개최지 국가 내에서 이 운동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있고 영향력을 어떠한가 등이 해당 시기 대회의 성격, 규모, 의미 등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월드코인과 기본소득,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 사이에서’

#. 이번 호 팔매통신은 지난 달 샘 알트먼 방한에 맞춰 입방아에 오른 ‘월드코인’을 다뤄보고자 한다. 알트먼은 한국 행사에 참여해 “기술이 발전하면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다. 기술혁명의 역사를 살펴보면 노동시장 변화에 우리는 적응해 왔다. 문제는 속도다. 발 빠른 혁명에 적응하기란 어렵다, 월드코인”을 통한 기본소득은 하나의 해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오랜만에(!?) 기본소득이 사람들의 관심사에 오른 건 기뻐할 만한 일인데..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과연 월드코인은 ‘모두의 것을 모두의 것으로’라는 기본소득의 철학을 실현할 열셋말일까? 혹은 위험한 유사품일까?

1) 월드코인은 2019년 샘 알트먼이 공동창업자(알렉스 블라니아)와 설립한 블록체인 재단이다. 월드코인은 홍채 인식 기술을 이용해 사용자의 신원을 인증하고, 이 인증에 참여한 사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나눠준다. 일단 홍채 인식 기기 ‘오브(orb)’로 홍채 정보를 인식하면 개인별 ID(월드 ID)가 생성된다. 발급된 월드 ID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지갑인 ‘월드 앱’을 만들고 여기에 가상자산인 ‘월드코인 토큰’을 보관할 수 있다. 월드코인 측은 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해 현재 신규 가입자들에게 무상으로 일정량의 토큰을 지급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5월14일 취재원을 통해 “샘 알트먼이 월드코인 사업에 약 1억 달러(약 1천 338억 원)규모의 투자를 유치중이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월드코인은 지난 8일 이더리움 기반의 가상자산 관리용 지갑 앱인 ‘월드 앱’을 전 세계 80여개 국에 출시했다.

테크노 마르크시스트와 기본소득

먼저 월드코인 이야기에 앞서 샘 알트먼에 대해 알아보자. 8살 때부터(학) 코딩을 공부했다는 알트먼은 스탠퍼드대에서 컴퓨터 공학과를 다니다 자퇴한 뒤 2005년 사용자들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공유 소셜회사 루프트를, 2011년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회사 오케이큐피트를 공동창업해 이를 각각 560억 원, 6조 5천억 원에 매각했다. 이후 2014년 Y콤비네이터²⁾ 대표를 맡았으며,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지금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듯, 챗 GPT를 개발한 오픈AI의 CEO 자리에 앉게 된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에 대해 이 정도 소개를 한다면, 소위 ‘기덕(기본소득덕후)’로서 그와 기본소득의 인연을 살펴보자. 그는 Y콤비네이터 대표 시절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AI 기술 확산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부가 빅테크에 집중되는 불평등에 주목했다. 그리고 그 ‘불평등’은 기본소득이 아니고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페이스북 공동창업자인 크리스 휴즈와 함께 실리콘밸리의 ‘기본소득 브라더스^{Basic income bro}’로 불렸으며, 심지어 테크노 마르크시스트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저는 사람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지급하는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껴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만, 관료주의와 자격요건으로 인해 사람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불완전한 상상일 뿐입니다. ... 저는 기술이 계속해서 전통적인 일자리를 없애고 막대한 부를 창출함에 따라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국가적 규모로 UBI가 도입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우리가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한다는 모습은 우스꽝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 따라서 이런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비디오 게임을 할까요? 새로운 것을 창조할까요? 행복하고 더 성취감을 느낄까요? (샘 알트먼, 2016.1.28. Y콤비네이터 블로그)”

실제로 그는 기본소득 연구에 적극적 투자자다. 그는 Y콤비네이터 대표 재직시절 비영리기관 Y콤비네이터리서치를 설립해 2016년 캘리포니아 오كل랜드에서 10여 가구를 선정해 1년 동안 무조건적으로 매달 1천 500달러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에 나섰으며, 2018년 80명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2차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어 그가 CEO로 있는 오픈 AI는 2020년 기본소득을 연구하는 전문가 단체인 기본소득 재단^{UBI Charitable}에 2020년 1천 만 달러를 지원했고, 오픈리서치에 2021년 7만 5천 달러를 지원했다.

오픈리서치 기본소득 연구팀은 그간의 기본소득 실험 표본이 너무 적고,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실

2) 에어비앤비, 드롭박스 등을 키워낸 실리콘밸리 최대 투자기업이다. 당시에 기본소득 실험을 한다고 하여 기본소득론자들에게는 이름이 알려지기도 했다.

험을 통한 인사이트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미국 2개 중에서 약 3천명을 모집하고 이 중 1천명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2천명은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3년간 매월 1천달러를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 중이다. 연구자들은 기본소득 실험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자급자족 및 웰빙의 변화 결과를 측정하고, 개인이 시간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본소득이 자녀와 네트워크에 속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데이터를 수집한다. 또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개인의 경험, 의사결정 과정, 직면한 제약들을 이해하고자 한다.

월드코인과 기본소득: 자유와 평등의 만남인가, 자선행위를 가장한 데이터착취인가

“월드코인은 모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는 공공 유틸리티로서, 세계 최대의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나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글로벌 경제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가능케 해 지구상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미래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길 바랍니다.” (월드코인 홈페이지 환영사)

기본소득에 (나름대로) 진심인 샘 알트먼은 ‘인간과 AI를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현실’, ‘AI가 많은 직업을 대체하며 일자리가 소멸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라는 기술을 활용해 월드코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월드코인 프로젝트의 목표는 보통 우리가 은행거래를 할 때 활용하는 생체인증 보안시스템을 암호화폐 시장에 도입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AGI³⁾가 나온다면 디지털 상에서 AGI와 사람을 구분하기 어려워져, 인간이 스스로 인간임을 증명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라는 것이 전망이다. 이 때 월드 ID(홍채인식)가 인간임을 인증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이야기다. 공동창업자인 블라니아는 “현재 월드 ID가 있으면 월드코인을 나눠주고 있는데, 사람이어야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며 “사회가 AGI 시스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람과 기계의 역할 구분에 대한 답이 없다. 앞으로 이 시스템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월드코인은 12개국 사람들에게 구 모양의 장치를 배송했고, 오브^{Orb}라고 불리는 홍채인식 장치는 사람들의 홍채 이미지를 스캔하여 짧은 숫자 코드로 변환하고, 이 코드를 통해 가입여부를 확인한다. 오브로 홍채 인식을 완료하면, 인식한 사용자는 월드 ID를 갖게 된다. 월드 ID는 디지털 세계의 인터넷 여권처럼, 개인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월드 ID를 통해 신원이 인증된 사람은 ‘월드 앱’을 통해 월드코인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을 할 수도 있다. 만약 한국에서 월드코인에 가입하려면 홍채 인식 장비^{Orb}를 갖춘 업체(국내는 비더시드, 분당 서현역 근방)에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3) AGI는 인공지능(AI)을 넘어서 범용인공지능이라고 불린다. AGI는 인간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학습하고 창작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뜻한다.

“월드코인을 전 세계에 출시하는 것이 목표다. 활성사용자 1억명을 넘기면 네트워크가 구축돼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월드코인 공동 창업자, 블라니아)

현재 월드코인은 199만 2천 명이 가입한 상태⁴⁾로 2023년까지 사용자 10억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샘 알트먼은 월드코인이야말로 전 세계인들에게 은행 없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 세계적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인프라라고 선전한다. 현재 월드코인은 10억 명의 사용자를 모아 월드코인 토큰으로 돌아가는 경제 모델을 갖추게 되면, 수익의 20%(토크노믹스 팀과 투자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편적 기본소득UBI 형태로 배포할 예정임을 밝혔다.

하지만 낯선 비판도 만만찮게 쏟아진다. 가장 먼저 중요한 월드코인(토큰)의 사용처나 비즈니스 모델이 확실하지 않은 점 때문에, 과연 이 방식으로 UBI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생체 인식 데이터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특히 월드코인의 사용자 모집이 인도네시아, 케냐, 수단, 칠레와 같이 빈곤률이 높은 남반구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탈중앙화라는 명목 하에 데이터 헤게모니 세력이 방대한 데이터 매장량을 전유하는 행태라고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리하여 매일 매 순간 과거는 현재의 것이 되곤 했다. 이런 식으로 당이 예언한 모든 것들은 문서상으로 증명되고, 그때그때 필요에 맞지 않는 기사나 의견은 기록에서 영구히 삭제되었다. 말하자면 모든 역사는 필요에 따라 깨끗이 지우고 다시 고쳐 쓰는 양피지 위의 글씨와도 같은 것이었다. 일단 그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어떤 경우에도 거기의 허위가 섞여 있다고 주장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었다.” (조지오웰의 소설 『1984』 중)

이러한 비판들을 종합해 탄생한 이미지는 ‘홍채인식 시스템 Orb와 조지오웰의 빅브라더’의 콜라보다.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실체가 있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웹상의 많은 글들과 전문가들은 월드코인에 우려의 시선을 던지고 있다. 필자 역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빈약하고 블록체인 관련 지식이 적은 관계로 함부로 재단하기는 어려웠다.

*팔매의 한(두)마디

이처럼 한 쪽에선 오랜 문제를 해결할 최고의 솔루션이라고 칭송받지만, 한 쪽에서는 디스토피아

4) 23년 7월 11일 기준.

적 음모로 불리는 월드코인. 당장의 실현 가능성을 넘어 제일 비판할만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기술적 논리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런 속도로 가다보면 탈중앙화라는 명목 하에 지금껏 쌓아온 수많은 사회적 합의들이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월드코인 논란을 “시간이 해결해주겠지”라며 뒤로 물러서 있기엔 꽤나 큰 문제로 보인다. 그렇다면 월드코인을 배격하자는 식으로 글을 마쳐야 할까?

아니다. 나는 그의 생각에 대해 듣고, 그의 이력을 읽어가며. 그가 자유로운 세상을 꿈꾸는 이상주의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기에 월드코인의 배격 혹은 승배를 넘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고 싶어졌다. ‘기술이 더 자유로운 세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있을 샘 알트먼을 찾아가는 일이다. 그리고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에 초대장을 건네주고 싶다. 짧은 편지, 이 세계 어딘가 끝 끝내 남아있을 희망과 함께.

“알트먼씨, 당신이 바라는 세계가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돌려내는 자유와 평등의 유토피아에 가깝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우리가 온전히 같지도, 다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 디스토피아처럼 보이는 세상에 꾀꾀 숨겨진 신비로움을 찾아갈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기에 꽤 오랜 시간 기본소득 논의가 이어져 온 장에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 곳에서 당신의 세계, 그리고 오픈리서치의 기본소득 실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당신이 꼭 이 대회에 오셨으면 좋겠네요.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의 신비로움을 조금이나마 엿본, 팔매 드림)

“단순히 살아남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사는 게 목적이라면, 궁극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진단 말인가? 사람들이 그들을 자신들과 똑같이 개조시킬 수 없듯 그들 또한 사람들의 감정을 변화시킬 수 없다. 설령 그들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나하나 적나라하게 파헤친다 하더라도, 인간의 속마음까지 공략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속마음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신비로움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조지오웰의 소설 『1984』 중)